

# 올해 마지막 공모대어 출격 글로벌 종합 식품기업 도약

## IPO 간담회

### 교촌에프앤비

외식 프랜차이즈로는 첫 직장장  
3년 연속 본사 매출 3000억 이상

올해 마지막 공모대어(大魚)로 꼽히는 교촌에프앤비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코스피 직장장은 외식 프랜차이즈로는 처음이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우회 상장으로 증시에 발을 들였다.

소진세 교촌에프앤비 회장은 2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촌의 비전인 글로벌 종합 식품 기업으로 도약하는 제2의 성장에 뜻깊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며 상장 일정을 공개했다.

교촌에프앤비는 내년 30주년을 맞이하는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일반 대중들에게 교촌치킨을 판매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 천연 재료 기반의 소스 등 고품질의 원재료를 사용해 두꺼운 소비자층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치킨 업계에선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결과 3년 연속 본사 매출 3000억원 이상의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6개국에 진출해 해외 사업영역을 넓혔다. 추후 중동·대만·호주·터키 등에 새롭게 진출해 25개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

황학수 교촌에프앤비 사장은 “소비자와 가맹점 중심의 경영을 통한 브랜드”를 교촌의 핵심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가맹점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첫번



소진세 교촌에프앤비 회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째 목표다.

그는 “각 가맹점의 영업 상권을 철저히 보호해 꾸준히 가맹점 평균 매출액 1위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의 지난해 매출액은 3801억원, 영업이익은 394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156억원, 153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매출만 놓고 보면 지난해보다 16% 증가했다. 황 회장은 “매장수 증가, 중대형 매장 전환, 신제품 효과, 배달 수요 증대 등에 힘입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15%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으로도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가맹 사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규 가맹점 개설과 매장 컨셉트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1234개인 가맹점을 회사 측은 2025년까지 1500개 이상으로 늘리고 매장 리모델링을 통한 품질 안정화와 배달 시간을 단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매출은 7700억원, 영업이익은 1000억원까지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송태화 기자 alvin@

# ‘아이폰12’ 오늘 예판... 30일 정식 출시

이통사, 각종 혜택 제공



아이폰12 단말 이미지./ SKT

애플의 첫 5G 아이폰인 아이폰12가 23일 예약판매를 거쳐 30일 국내 출시된다. 이통통신사들은 각종 혜택으로 고객 유치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출시일인 30일 0시 수도권 거주 고객에게 새벽 배송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T다이렉트샵에서 아이폰12를 예약하고 ‘바로도착’ 서비스를 신청하면 선착순 1000명까지 새벽 배송을 받을 수 있다.

또 T다이렉트샵에서 교통카드 기능이 적용된 티머니 스티커 카드를 무료로 준다. 티머니 스티커 카드는 티머니가 공식 출시 예정인 제품으로, SK텔레콤 아이폰12 고객에게 먼저 단독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아이폰 분실, 파손을 우려하는 고객을 위해 뉴T아이폰케어로 분실·파손(월 1만5000원)과 파손(월 1만1000원)을 모두 보장하며, 기존 상품에서 보상 횟수를 늘려 3년간 6회를 보장한다. 아이클라우드 저장공간 50GB를 무료 제공한다.

KT는 애플과 제휴를 통해 ‘KT 애플

케어팩’을 출시한다. 애플케어 서비스(액정 파손 시 4만원, 기타 파손 시 12만원 자기부담금)와 아이클라우드 매월 50GB를 함께 제공한다.

KT는 아이폰12 출시 하루 전인 29일 BJ 최군이 출연하는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한다. 초청 고객 100명에게는 30일 오전 7시 아이폰12와 밀키트를 배송한다. 또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한강 세빛섬에서 ‘바이크 스루’ 식당을 선보인다. 이곳에서는 자전거와 식사를 1초당 1.98원에 제공하며, 아이폰12도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다.

아울러 KT는 통신사 중 유일하게 ‘에어팟 전용보험’도 선보인다. 에어팟 또는 에어팟 프로 분실 및 파손 시 최대 20만원을 보장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 일감 몰아주기 통과시 후폭풍 11조 지분 매물로... 증시 혼란

전경련, 소액주주 피해 눈덩이 우려  
10.8조, 기업 시가총액의 9.1%  
계열사 간 거래 축소 사실상 불가능

(매각 주식가치 상위 5개 기업 현황)

/전국경제인연합회

구분	보유지분율	목표지분율	매각주식수	매각 주식가치 (A)	시가총액 (B)	비중(A/B)
1 A사	75.00%	50.00%	19,578,315주	3조346억원	12조1386억원	25.0%
2 B사	28.59%	19.99%	6,096,430주	1조2040억원	14조80억원	8.6%
3 C사	29.10%	19.99%	16,027,423주	1조1572억원	12조6979억원	9.1%
4 D사	29.99%	19.99%	3,753,741주	7489억원	7조4813억원	10.0%
5 E사	71.86%	50.00%	25,329,561주	7422억원	3조3947억원	21.9%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시 10조8000억원 규모의 지분이 주식시장에 풀려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조항 통과 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30% 보유한 상장사,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신규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총수 일가가 상장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규제 대상인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규 규제 대상으로 포함된 56개 상장사가 팔아야 할 지분의 총가치는 10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이는 이들 기업 시가총액의 9.1%에 해당한다.

전경련은 모회사 지분이 75%인 A사의 사례를 들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A사는 개정안 통과 시 자사 지분을 시가총액의 25%만큼 처분해야 하고, 매각 주식 가치는 3조원이 넘는다. 또 대량의 지분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주가 변동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현대글로벌비스는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자 2015년 1월 13일 총수 일가의 지분 매각을 시도했는데 이날 주가는 15% 급락했다.

전경련은 56개 상장사의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 간 거래 비중이 8.7%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계열사 간 거래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 후 1년간의 규제 유예 기간에 거래처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기업이 제품의 효율적 생산·판매, 안정적 공급선 확보 등을 위해 계열사 간 거래를 하지만 이에 대해 무리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삼성생명은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에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했지만, 개정안으로 위탁이 제한될 경우 보험료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이유로 자회사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일감 몰아주기로 비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힌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KAI, 중앙119구조본부와 수리온 소방헬기 계약

소방헬기 2대 453억원에 계약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수리온 소방헬기를 추가 납품하게 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21일 중앙119구조본부와 수리온 소방헬기 2대를 453억원에 계약했다고 22일 밝혔다. 납품은 2022년 10월까지이며, 호남119특수구조대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에 배치된다.

수리온 소방헬기는 다목적 헬기로 개발된 수리온을 수색·구조, 응급환자 이송, 화재 진화, 수송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조한 헬기다. 2015년 제주소방, 지난 6월 경남소방에



2018년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납품된 국산 첫 소방헬기 한라매.

이어 중앙119구조 본부까지 소방헬기로는 세 번째 계약이다.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 영토 전 권역의 대형·특수 재난사고를 담당하는 중

앙119구조본부가 성능과 안전성, 후속 지원능력 및 교육훈련 역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 수리온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계약된 수리온에는 산악·해상 전방위에서 안전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각종 최첨단 항전시스템과 임무 장비들이 장착된다. 12인치 대화면 시현장치와 터치스크린 방식의 컨트롤러가 적용된 최신 통합항전장비가 적용되고, 4축 자동비행조종장치, 기상레이더, 철탐·고압선 정보가 제공되는 한국형 3차원 전자지도, 해상비행을 위한 비상부유장치 등이 탑재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KT, 학원 교육 디지털화 나선다

‘세계로시스템’과 사업협력 MOU  
학원관리 솔루션 연동·기능 고도화

KT는 학원관리 솔루션 업체 세계로시스템과 ‘학원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사업협력’ MOU를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비대면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열린 이번 협약식엔 민혜병 KT 기업사업전략본부장과 진병식 세계로시스템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화상교육 서비스 구축 및 출시 ▲KT 통신서비스와 학원관리 솔루션 연

동을 통한 기능 고도화 ▲학원대상 패킹 상품 개발과 마케팅 ▲교육 관련 빅데이터 사업협력 등을 함께 추진하게 된다.

KT 클라우드 네트워크 인프라 기반의 화상교육 플랫폼과 세계로시스템의 학원관리솔루션을 결합해 온라인 통합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학원에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각각 도입할 필요 없이 온라인 교육을 시작할 수 있다.

양사가 개발한 통합 교육 플랫폼은 학원 교육과정과 학원생 정보를 화상 교육과 연동해 쉽게 온라인 강의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KT 네트워크에



22일 오전 KT 온라인 비대면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열린 ‘학원 교육 디지털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민혜병 KT 기업사업전략본부장이 진병식 세계로시스템 대표와 MOU를 체결하고 있다. /KT

서 간편 접속과 인증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또 KT 클라우드를 통해 수업 자료를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며, 강의 영상을 끊임 없이 송출한다.

/김나인 기자